



국민·기업에 부담 주는

32개 부담금 폐지·감면

비상경제 민생회의(2024.3.27.)



국민이 **납부사실도**
잘 몰랐던



민간 **경제 활동을**
위축시키는



경제·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
타당성이 약화된

부담금

전면 정비 필요

전력기금 부담금

3.7% → 1년차 3.2% → 2년차 2.7%

단계적으로 1%p 인하 하여
국민·기업 부담 경감

지로통지서

OCR

지로번호 ■■■■■■■■



출국납부금

항공요금에 포함된
출국납부금

4천원 인하

(11→7천원)

12세까지 면제 확대

(現 2세)

※(외교부) 1천원 → 폐지, (문체부) 1만원 → 7천원(△3천원)

부담금 정비안

국민 체감형 부담 완화

국민들이 그간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,
요금 인하 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폐지·감면

기획재정부

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

영화관람료에 포함하여
납부하는 부과금
(입장권 가액의 3%)

폐지



석유수입부과금

천연가스
수입부과금 **30%** 수준 인하

(24,242→16,730원/톤)

1년 한시



학교용지부담금

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
지속 부과되던 부담금
(분양가격의 0.8%, 공동주택 기준)

폐지

환경개선부담금

영세 자영업자*
대상 **50% 인하**

※개인소유 배기량 3,000cc 이하,
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



농지보전부담금

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부담금을
非 농업진흥지역에 한해
부과요율 인하

(개별공시지가 30→20%)



존치 부담금의 타당성·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,
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 등
관리체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